



## 폴란드 · 헝가리

# 경제정책 딜레마로 경제불안 야기

중·동구 지역의 체제전환을 선도했던 폴란드와 헝가리는 공통적인 경제정책의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것은 정부 주도의 재정정책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빠져거림으로써 경제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양을 원하는 정부는 재정확대를 추구하면서 중앙은행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금리인하 압력을 가하고 있는 반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 대해 강력한 긴축재정 운영을 요구하고 있다.

### 심화되는 경기둔화

지난 1990년대 중반까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거듭했던 폴란드는 1998년 이후

성장세가 둔화되었고, 특히 지난해부터는 거의 성장이 정체되는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한편,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했던 헝가리도 지난해부터 성장세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 경기둔화는 주요 수출시장인 EU의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부진에 기인하고 있으나, 포린트貨의 강세도 주요 수출품목인 전자제품, 소프트웨어 등의 수출시장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수출 부진으로 인해 경기둔화를 겪고 있는 헝가리와 달리, 폴란드의 경기침체는 주로 내수경기 부진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후반부터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의 억제를 위해 중앙은행이 과도한 금

〈표 1〉 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f
폴란드	6.8	4.8	4.1	4.0	1.0	1.5
헝가리	4.6	4.9	4.2	5.2	3.8	3.6

자료: EIU.

리인상에 나선 결과 폴란드 경제는 소비와 투자가 극심한 위축에 빠지게 되었다.<sup>1)</sup> 여기에다 17% 안팎의 높은 실업률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심리와 맞물려, 내수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재정수지 불균형 확대

지난 6월 중순 폴란드의 벨카(Belka) 재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2003년 예산안의 적자규모를 400억 즐로티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그가 주장해 온 대로 재정지출 증가를 연 1%로 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이 GDP의 5.5% 수준인 430억 즐로티(107억 달러 상당)로 최종 확정된 직후인 지난 7월 2일 벨카 재무장관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전격 사임을 발표하였고, 향후 폴란드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폴란드 금융 및 외환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좌파연합(SLD) 정부가 들어선 이후 벨카 재무장은 극심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 임금을 동결하는 등 과도한 재정지출 증가 억제를 통해 폴란드의 재정수지가 통제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경기침체와 실업

증가 등으로 인기가 크게 하락하고 있는 현 정부의 각료들은 재정지출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 왔으며, 재정지출 규모에 대한 벨카와의 갈등의 결과 밀러(Miller) 총리가 벨카를 실각시킨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최근 발표된 헝가리의 재정지표도 헝가리 정부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금년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는 5,010억 포린트(20억 달러 상당)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전체 재정적자 규모에 해당하는 것이다. 재정적자가 이같이 확대된 것은 과도한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한 중도우파 정부가 선거를 의식하여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 연금 지급액 확대 등 방만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한 데 이어 새로 등장한 사회당 정부도 '100일 계획'이란 야심찬 재정지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당 정부는 선거 공약의 이행을 위해 집권 후 100일 동안 일부 공공부문 임금의 50% 인상 등을 포함하여 총 1,700억 포린트의 재정지출을 계획하고 있다.

헝가리 재무장관은 금년도 전체 재정적자는 5,050억 포린트로 예산계획상 GDP의 3.2%를 다소 넘는 GDP의 4.5%에 이를 것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실제로

〈표 2〉 양국의 GDP 대비 재정적자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f
폴란드	-1.3	-1.0	-0.9	-1.0	-4.5	-5.1
헝가리	-2.6	-6.2	-3.6	-3.1	-3.2	-6.5

자료: EIU.

1) 2001년 폴란드의 소비지출 증가율은 약 2%에 머물렀고, 투자는 9.8%나 감소하였음.

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기대이며 금년도 재정적자는 GDP의 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양국 재정수지 관리의 공통적 문제점

양국의 재정수지 문제는 몇 가지 공통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선거를 앞두고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확대된 것이다. 폴란드는 총선을 1개월 남짓 앞둔 지난해 8월 재정적자 확대가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바우크(Bauc)가 사임하는 등 정치적 불안을 겪은 바 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중도우파인 선거행동연대(AWS) 정부가 무분별한 재정지출 확대에 나선 결과였으며, 다음 정권에도 재정관리의 무거운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헝가리도 총선과 관련하여 재정수지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었다.

둘째, 유권자 지지를 의식한 집권당이 심각한 재정수지 불균형 해소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폴란드의 밀러 총리는 벨카 재무장관의 후임으로 콜로드코(Kolodko)를 임명하였는데, 콜로드코는 적극적인 확대재정을 추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어 폴란드의 재정수지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헝가리도 새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양국은 EU 가입을 위해 현재의 재정적자를 크게 줄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현재의 전망대로라면 양국은 2004년 혹은 2005년까지 EU에 가입할 예정이며, 그 후 2년 이내에 유로화 통화

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로 축소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격한 재정지출 축소로 인한 지출 하락을 원치 않는 양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축소하지 않고 이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제고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 중앙은행과의 갈등 심화

경상적자 확대, 물가불안 등을 이유로 2000년까지 강력한 금융긴축에 나섰던 폴란드 중앙은행은 최근 1년간 기준금리를 무려 9% 포인트나 인하하였다. 또한, 지난 4월과 5월 물가상승률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3%와 2.5%로 체제전환이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임에 따라 중앙은행은 4월과 5월에 각각 0.5% 포인트씩 기준금리를 인하하였다. 중앙은행은 경기위축과 낮아진 인플레이 위험을 감안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으나, 아직도 신중한 통화정책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정부와 심각한 마찰을 빚고 있다.

정부의 우려는 아직도 실질금리 수준이 너무 높아 소비와 투자부진이 심각하며, 아울러 즐로티화가 유로화에 대해 강세를 보임으로써 기업들의 수출경쟁력도 잠식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물가가 충분히 하락하였고 경기는 심각한 침체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에 대해 보다 큰 폭의 금리인하 및 즐로티화의 약세 유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현 집권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소수파 정당인 폴란드 농민당(PSL)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앙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중

〈표 3〉

## 양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단위: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f
폴란드	15.1	11.7	7.3	10.1	5.5	3.2
헝가리	18.3	14.1	10.0	9.8	9.2	5.8

자료: EIU.

양은행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동 법안은 물가안정뿐 아니라 경기부양과 실업감소를 중앙은행 기능으로 명문화하는 한편, 통화위원회 위원 숫자를 늘림으로써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결정에 정부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은 집권연정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좌파연합의 지지를 받아 의회내 해당 위원회에 심사 계류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완된 재정관리를 우려한 중앙은행의 바세로비츠(Balcerowicz) 총재는 금융정책 완화를 위해 확실한 재정긴축을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IMF는 물론 EU와 OECD 등도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크바스니에프스키(Kwasniewski) 대통령도 바세로비츠 총재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어 정부와 중앙은행의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중앙은행법 개정애 소극적 입장을 견지하며 재정개혁을 추구했던 벨카의 뒤를 이어 정치권의 지지를 받으며 입각한 신임 콜로드코 재무장관은

바세로비츠 총재와 매우 불편한 관계로 알려져 있어, 향후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결끄러운 관계가 더욱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한편, 헝가리도 5월 및 6월의 전년동기 대비 물가상승률이 각각 5.6%와 4.8%로 체제전환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4분기 중 정부의 압력으로 기준금리를 2% 포인트나 인하하였던 헝가리 중앙은행은 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에 이어 7월 초에도 또다시 기준금리를 0.5% 포인트 인상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중앙은행은 현재의 물가안정이 일시적일 수 있으며, 하반기 물가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정책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금융긴축에 불만을 가진 헝가리 정부는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중앙은행 기능을 변화시키는 중앙은행법 제정 가능성을 부각시키며 중앙은행을 압박하고 있다.

【高 載 昊】